십일조로 하늘 바람 튜브 되기

(민18:1~32)

1.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2.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3.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4.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5.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평생 동안을 성막에서 종사해야만 하는 아론 집안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을 정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물 중에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취할 것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일조를 내서 레위인들이 살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득의 십일조를 받는 중에서 또 십일조를 아론의 집안으로 돌리게 하심으로서,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해주시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생각할 때에 <십일조로 하늘 바람 튜브 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십일조로 하늘 바람 튜브 되기'

서울의 잠수교 남단의 세빛섬에 "튜브스터"라는 신개념 수상레저보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노를 젓게 되어 있고, 생긴 모양이 움푹 파인 대접 같은 튜브인데 밑바닥이 딱딱하게 되어 있고 가운데 파라솔이 꽂힌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섯 사람까지 타서 준비해간 음식이나 음료 같은 것들을 먹습니다.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수상카페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가봅니다. 신선놀음이죠.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더니 40분 빌리는데 3만원이고 한 시간이면 4만 2천원으로 비싸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아예 바닷물 위에 도시를 지었습니다. 수십만 그루의 통나무를 바다

에 박아 넣고 집을 지은 수상가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택함을 받은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은 튜브스터를 타고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물놀이 하듯이 사는 것이 바로 선민의 삶입니다. 그러면 선민이 아닌 사람은 어떨까요? 조직교회 안의 일원이 되었다고 해서 다 선민은 아닌데 그들의 특징은 이 세상 바다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바다에 빠져 산다.'는 것은 마음의 지성소 안에 이 세상 것들 중에 좋은 것이라고 느끼고 믿어서 담게 되면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의 지성소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고, 그것과 관계하면 너무 기쁠 것이라고 믿어지는 자리입니다. 내 마음에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들어오게 되는 자리가 마음의 지성소인데 그 자리에 이 세상 것이 들어와 있어서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고 그것만 있으면 기쁠 것이고 그것만 이루어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하면 세상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은 해녀가 바다 속 깊이 자맥질을 해서 전복이나 굴을 따듯이 결국 기쁨을 캐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세상 것들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고 기쁨을 캐내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일이 우울증이고 걱정이고 근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세상에 빠지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왜 이렇게 기분이 가라앉아 있어?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라고 하는데 세상 것을 담으면 무거워지고 세상 것을 담으면 세상 바다에 빠져서 살게 되므로 항상 헐떡거리며 살게 됩니다. 반면에 행3:19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라고 합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것은 '하늘을 향해 호흡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선민은 돈에 빠지지 않고 돈 쓰는 맛에 빠지지 않고 돈 버는 맛에 빠지지 않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맛에 빠지지도 않고, 목사님들은 목회하는 맛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엄마 같으면 자녀를 키우는 맛에 빠지지 않고, 아빠 같으면 사업하는 맛에 빠지지 않습니다. 골프에 빠지지 않고 취미에 빠지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딱 하나의 존재를 마음에 담았을 때 빠지지 않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땅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시는 예수님 한 분을 우리 마음에 담았을 때에 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분은 존재 자체가 하늘이시고, 땅에 내려온 하늘이시기 때문에 하늘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담을 때에, 우리 마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간 팽팽한 튜브처럼 되어서 이 세상이라는 물에 빠지지 않게 되는데 직장에 가서도 직장에 빠지지 않고, 돈을 만져도 돈에 빠지지 않고, 목회를 해도 목회에 빠지지 않고 자녀를 길러도 자녀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눅14: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의 지성소에 예수님을 모셔 들여서 하늘 바람으로 가득 찬 튜브가 되는데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 목숨이나 몸까지도 마음 안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은 내 몸까지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방수처리가 되어서 절대로 흡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럴 때에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분 좋은 사람에게 '왜 그렇게 들떠있어? 왜 그렇게 방방 뜨냐? 왜 그렇게 하늘을 나는 것 같으냐?'라고 묻습니다. 뜹니다.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뜬 상태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말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이고 예수님을 따라 가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 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물에 뜨기 위해서 하늘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들이는데 가족까지 미워하고 내 목숨까지도 마음에서 떨쳐버리는 것인데 마치 방수처리 된 천이 물방울을 튕겨내듯이 떨쳐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내 가족이 세상 일 때문에 치이고, 세상 일 때문에 숨 가빠하고, 세상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몸도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경에 빠져서 헐떡거릴 때에 내가 빠지지 않고 있어야 그를 건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도 같이 빠진 상태에서 그를 돕겠다고 한다면 둘이 같이 빨리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의 생계 문제와 십일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하늘 바람 튜브가 되는 것이 도대체 십일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인데, 아주 지대한 상관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 바람 튜브가 되는 것과 십일조와의 연관성을 따져봅니다.

하늘 바람 튜브가 되는 것은 요즘의 전기 차와 같습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차가 나왔어요. 그 차를 사려고해도 비싸기도 하거니와 충전소가 극히 적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늘 바람으로 차려면 하늘 바람을 주입해야 하는데, 그 주입할 수 있는 곳이 성막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는 성전 밖에는 없습니다. 성막에 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법궤는 말씀의 돌판을 담아둔 상자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 하시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바람으로 비유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히브리어로 루아크(바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번제단과 법궤 사이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하늘 바람으로 채워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각지에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성전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때 삶의 현장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사업에 빠져버리면 사업도 망하고 나도 망합니다.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몸상하고 마음

상하고 사업도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사업이 세상 바다에 빠져들어 갈 때에 그 사업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사업에 빠지지 않고 떨쳐내는 것인데 내 마음을 성막으로 보내서 이 번제단과 법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의 의미가 바로 사업을 마음에서 떨쳐내는 죽음의 장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지성소 안으로 사업을 흡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흡입하면 무거워서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엄마가 번제단과 법궤 사이에 마음이 머문다는 것은, 번제단에서 자식에 대해 죽어서 자식을 마음의 지성소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마음에 끌어들이면, 자식이 세상에 빠질 때에 엄마가 자식을 끌어안고 더 빨리 빠지게 되는데 엄마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번제단에서 방수천이 물방울을 털어내듯이 마음에서 자식을 털어내고, 비워진 마음의 지성소에 법궤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다보면 우리의 마음을 가장 강렬하게 잡아당기는 것은 우리의 소득(수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만을 바라보고 삽니다. 교수님이 돈과 관계없는 것 같은데, 한 두어 달 학교에서 봉급을 안 준다면 교수를 그만둬야 하죠. 소득이 전제되어 있으니 교수 일에 전념할 수는 있지만, 소득이 없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려니 어쩔 수 없이 마음으로 소득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내라”고 규정을 내리십니다. 마음이 빠져있는 소득을 바라보면서 일하고, 소득을 바라보면서 봉사하고, 소득을 바라보면서 가르치고, 소득을 바라보면서 의사하고 소득을 바라보면서 대통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득의 십일조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들이 선민인데 내 피와 같고 살과 같은 소득에서 십분의 일을 떼어내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만, 십분의 일을 떼어서 성막으로 보내면 내 마음이 그 십분의 일을 따라가서 만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사는 주된 이유가 소득이라서 마음이 붙고 연결이 되고 그 관심에 묶여서 살아가다가 ‘십일조를 떼라’는 것은 세상 바다에 빠져 있는 자들로 하여금 뜰 수 있는 자들로 되게 하기 위해서 ‘십일조를 정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자유가 십일조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 마음이 십일조를 따라 빠져나와서 성막으로 가게 되고 번제단에서 세상 모든 것들이 들어와 있던 내 마음의 존재 상태를 죽이므로 마음의 공기주입구가 법궤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이때에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사느냐? 제사장들이 날마다 상번제를 드립니다. 절기에 드리는 제사에 덧붙여서 365일 하루에 두 번씩 제사를 드립니다.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면 타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하루 반나절이 다 지나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어떤 삶의 현장에서 살든지 모든 행동이 소득과 연결되어 있는데,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십분의 일이 성막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게 들어오는 소득을 위한 모든 노동을 하는 현장에서 마음이 성막으로 가게 됩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사업도 없고 장사도 못하고 나를 위해서 양을 죽이고 제사만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양을 죽이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인데 세상 것을 자꾸 빨아들여서 마음의 지성소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하는 내 존재가 지금도 성막의 번제단에서 타 죽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삶의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장님은 사업에 빠지지 않고, 목사님은 목회에 빠지지 않고, 엄마는 자식에 빠지지 않고, 병든 사람도 자기의 몸에 마음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고 하늘 바람 튜브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바람 튜브가 될 때에 나타나는 일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데 마치 창세기의 처음과 같습니다. 창1: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닭이 달걀을 품듯이 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혼돈과 공허위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실 계획이 알로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행동에 의해서 주어지는 소득의 십일조를 성막으로 보내서 마음이 따라갈 때에 세상에 묶인 내 마음이 번제단에서 죽고, 법궤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하늘 바람의 튜브가 되어버리면 한강에 떠있는 튜브스터처럼 내 삶이 뜨는 겁니다. 내 삶이 물에 빠지지 않고 뜰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주변의 혼돈과 공허와 빠져 들어가는 삶의 형편과 관계되는 사람과 모든 일들을 끄집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모든 병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몸의 건강뿐이므로 다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자기의 첫 번째 관심사에 연결해서 성경을 이해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 첫 번째 관심사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아프면 힘들지만 십자가를 붙잡고 그것을 이겨내고 내 몸 자체를 주님의 말씀대로 미워하므로 마음에서 털어냅니다. 이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 바람의 튜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몸과 마음이 오늘의 우리의 번제단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분리가 됩니다. 우리의 몸이 병 때문에 가라앉고 침체된 것을 하나님께서 끄집어 올리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몸에 가시가 박힌 상태에서도 능히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은총을 부어주심으로써 육체의 병을 너끈히 이기고 그 누구보다도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자꾸 세상의 관심사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하늘 바람 튜브가 되어서 떠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십일조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가 충전소를 찾아야 하는 것처럼 구약에는 성막과 성전을 찾아야 했지만,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서 하늘 바람을 충전하는데 누구에게나 자가용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십일조를 낼 때에도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의 생계를 위해서 낸다고 하는 것이 레위인의 생계와 맞물리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십자가 사건을 보고 내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십자가복음의(십자가복음이라는 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용적 기준에 맞지 않아 못마땅하고 교회 조직이나 목사님을 보고 내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계를 위해서 십일조를 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더 깊은 본래적 의미는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고 빠져나온 마음에 하늘 바람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러한 하늘 바람을 주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막을 관장했기 때문에 부수적인 이야기이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성막에 와서 번제단과 법궤 사이에 마음을 두고 하늘 바람이 주입되는 하늘 바람 튜브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십일조를 내는 것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번제단과 법궤 사이의 의미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기 위해 십일조를 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득에 빠져있던 마음을 십자가 번제단에 마음을 두기 위해서 십일조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십일조를 내세요. 십일조를 내면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습관적으로 내도 안 되고 안 내도 안 되고 오직 하늘 바람 튜브가 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번제단과 법궤의 의미가 완성되었습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법궤는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 마음을 끌고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지금 그 보좌까지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공간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십자가 사건(성막)을 통해 가능해졌으니 십일조를 내는 것입니다. 좀 교회의 당회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더라도 십일조는 교회나 목사님을 보고 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부터 승천까지의 공간을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곳에 마음을 두기 위함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마는 십일조도 안내면서 그곳에 마음을 두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복음 말씀이 귀를 울릴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서 신앙인으로 십자가를 제대로 붙들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일조에는 사랑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삶 전체가 세상의 걱정과 우울함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늘 바람 튜브 되게 하시려는 사랑임을 믿고 충실한 십일조 생활을 통하여, 이 십일조 규정에 약속된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